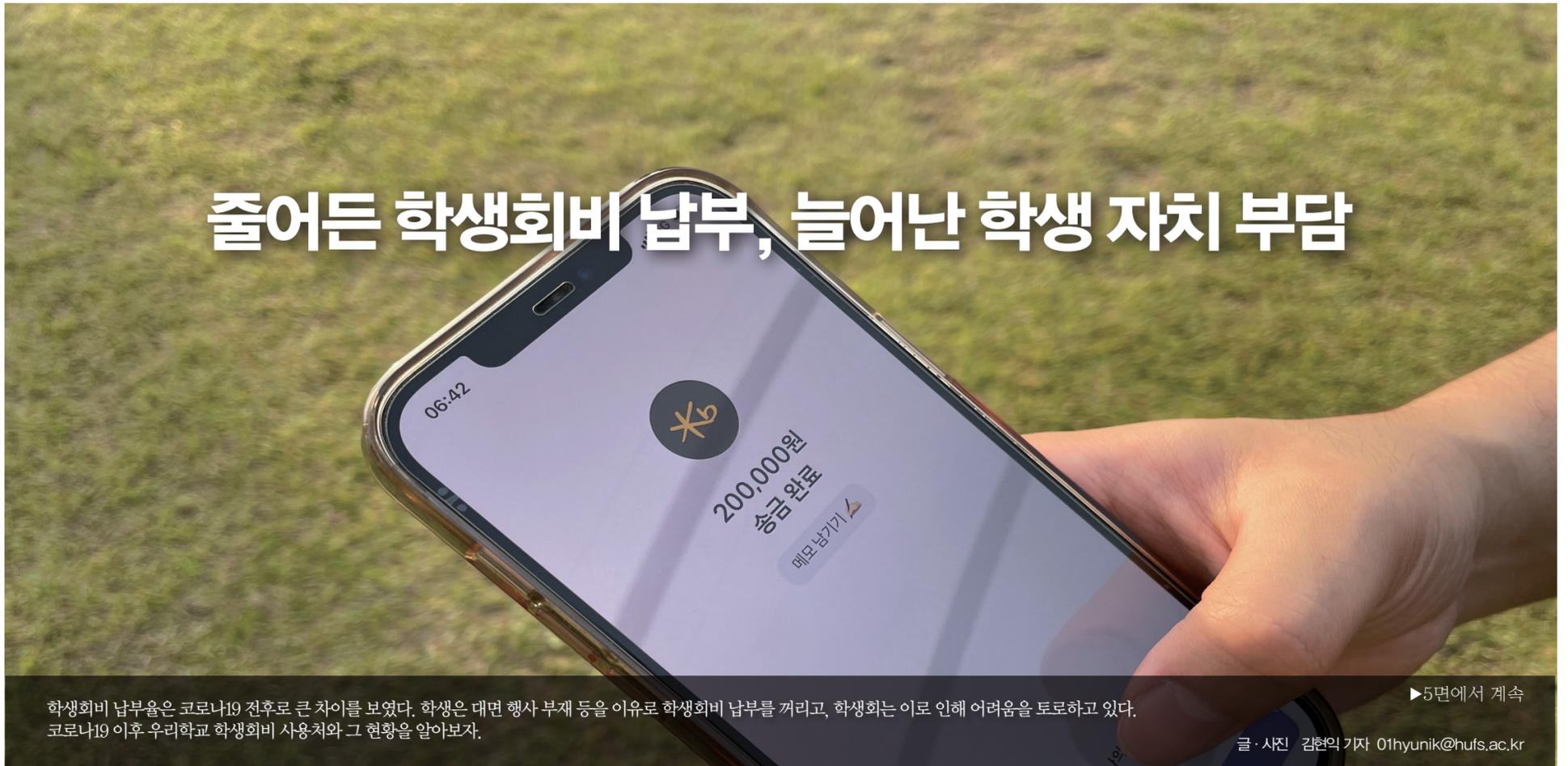


[기획] >> 5면
학생회비 납부 감소

[학술] >> 7면
대두된 모병제 논의

[사회] >> 9면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인물] >> 12면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줄어든 학생회비 납부, 늘어난 학생 자치 부담

학생회비 납부율은 코로나19 전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은 대면 행사 부재 등을 이유로 학생회비 납부를 꺼리고, 학생회는 이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학교 학생회비 사용처와 그 현황을 알아보자.

▶5면에서 계속

글·사진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우리학교 아동학대 예방 '아이 CONTACT 비대면 걷기대회' 개최해

이번 달 19일부터 30일까지 우리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아이 CONTACT' 비대면 걷기대회(이하 아이 컨택트)가 진행된다. 이번 달 1일부터 12일간 접수가 진행됐으며 마감일 기준 약 500명이 지원했다. 우리학교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아동학대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했다. 아이 컨택트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아동학대 문제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걸을 때 주위를 둘러보듯 주위 아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는 의미가 담겼다.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아동학대 피해 지원을 위해 기부된다. 스타일노리터스아토파트스파워우투스풋셋 등의 기업도 후원을 통해 아이컨택트에 동참한다.

걷기 코스는 '아이 컨택트(CONTACT)'와 '아이 프로텍트(PROTECT)'로 나뉜다. 참가자는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 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통해 거리를 인증하면 된다. 아이 컨택트 코스는 아이와 시선을 맞춰 걷는단 의미로, 최소 거리 제한이 없어 스노약자스아이와 함께 하

는 참가자스임산부에게 추천된다. 거리 인증 시 어린이 보호구역이 찍힌 사진을 함께 보내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아이 프로텍트 코스는 아이를 보호한다 의미로, 3.81km 이상을 걷는다. 3.81km는 2019년 기준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인 3.81%를 의미한다. 3.81km 완주자에게 완주기록증을 발급하며 인증 거리 상위 3명의 참가자에게 상품도 지급한다.

최윤주(글로벌스포츠·글로벌스포츠 17) 아이 컨택트 담당자는 "대회 규모가 크다 보니 10명의 학생이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참가자 500명이란 목표를 달성해 뿌듯하다"며 "많은 사람이 아동학대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 프로텍트 코스에 참가하는 김선진(글로벌스포츠·글로벌스포츠 20) 씨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데 아이 컨택트는 좋은 의미도 담겨있어 고민 없이 신청했다"며 "대회를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에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청농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금 수여식 열려

이번 달 3일 우리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청농 강영훈 국무총리(이하 강 전 총리)-김효수(서양어·영 어 58) 여사(이하 김 여사) 장학금(이하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달 20일 강 전 총리 가족이 강 전 총리 서거 5주년을 맞아 장학금 1억 원 기탁을 약정해 마련됐다. 총동문회는 이번 해부터 향후 10년간 매해 두 명의 학생을 선발해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생은 동문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 중 멘토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육군사관학교 교장과 주한 영국 대사를 거쳐 국무총리를 지낸 강 전 총리는 1977년부터 1년간 우리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직할 바 있으며 김 여사는 우리학교 동문이다. 이날 참석한 강 전 총리의 아들 강성룡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육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신 부모님의 뜻을 기려 우리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를 주관한 민동석 총동문회장은 "강 전 총리와 김 여사 모두 우리학교 사랑이 지극한 외대인이다"며 총동문회에 장학금을 쾌척한 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해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유중곤(통번역·중국어 15) 씨는 "멘토링이란 좋은 기회로 인생 멘토와 선배를 만나고 장학금까지 받게 돼 영광이다"며 멘토와 총동문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또 다른 장학생 유승연(상경·국제통상 18) 씨는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며 후배를 돕는 선배가 되고 싶다"며 "도움을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전했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FILA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특수외국어 사용 국가 대사 초청 포럼 개최해

지난달 30일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제 1회 특수외국어 사용 국가 대사 초청 포럼' (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선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오만, 우즈베키스탄 등 12개 국가의 대사를 초청해 각국의 언어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특수외국어 교육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포럼은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의 언어'를 주제로 한 1부와 '전략 지역 언어'를 주제로 한 2부로 나뉘었다. 1부에선 최종찬 우리학교 인도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대사가 △각국 문화의 특징 △발전 가능성 △자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에 대해 소개했다. 2부에선 윤석만 우리학교 부총장을 중심으로 △브라질 △오만 △케냐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대사가 특수외국어의 중요한 이유와 외국어를 통한 발전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우리학교는 특수외국어학과를 포함한 총 45개 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전 세계 △과학 △기술 △사회 △언어 △인문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인재 양성 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 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우리학교가 협력해 나갈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이에 오종진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원장은 "우리학교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을 통해 특수외국어 전문 창의융합



▲포럼에 참석한 대사들과 김 총장의 모습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관련 국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특수외국어 교육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활용했다. 대사들의 토론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으로 진행됐다. 100여 명의 특수외국어 관련 학과 학생과 특수외국어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각국 대사로부터 언

어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 참여한 엄유선(동유럽·폴란드 21) 씨는 "특수외국어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대사들이 특수외국어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의미 있는 연설을 들을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지난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특수외국어교육법 취지에 따라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우리학교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 선정돼

지난달 29일 우리학교가 이번 해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에 선정됐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인재 양성 사업이다. 선정 대학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면 기업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학생들의 빅데이터 직무 취업을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교육생 모집 및 홍보 △교육생 선발 및 관리 △데이터 전문 교육 과정 개발 및 제공 △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학교는 응용 언어학의 관점에서 컴퓨터 언어학 이해를 기반으로 △데이터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과정을 교육한다. 교육과정은 △기업 멘토 연계

프로젝트 기반 실무 교육 △예측 모델 분석 대회 플랫폼 캐글(Kaggle)을 이용한 팀 프로젝트 실습 △우리나라 언어에 특화된 자연어 처리 실습으로 운영된다. 그중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은 우리학교 AI교육원과 통번역대학원 등의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가 함께 수행한다. 이번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두일철 우리학교 AI교육원 교수(이하 두 교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과 시장 확대에 의해 언어 공학 기반의 자연어 처리가 중요해졌다"며 "우리학교의 자연어 처리 관련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데이터 청년 캠퍼스 교육과정을 접목해 산업에 필요한 자연어 처리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산학협력 △학교 △학생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학교 '자연어 처리 기반 딥러닝 기술 융합 과정' 교육 프로그램은 △연계 △융합 △이중 전공을 포함한 데이터 관련 전공 3·4학년 학생 및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달 내로 참여자를 모집해 7·8월 중 10주간 교육을 진행하며 정부에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맞춤형 채용 정보도 제공된다. 임예빈(공과·산업경영 20) 씨는 "우리학교가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대학으로 선정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데이터 관련 실무 교육을 받는

좋은 기회를 얻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우리학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돼 'AI 시대를 개척하는 글로벌 융합 전문가 양성'의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음 해 완공 예정인 송도캠퍼스엔 '데이터 기반 산학협력 혁신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나윤 기자 02myun@hufs.ac.kr

반병렬 반씨대중회 회장 강의실 헌정식 열려

이번 달 10일 반병렬(영·영어 55) 반씨대중회 회장(이하 반 회장)이 우리학교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인문관 403호를 반병렬 강의실로 헌정했다. 강의실 헌정식은 이재원 우리학교 대외협력처장(이하 이 처장)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 △총장 감사 말씀 △기부자 답사 △강의실 동판 제막식 △폐회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은 반 회장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학문 영역을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반 회장은 김 총장에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용기를 줘 감사하다"며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학교의 사명과 역할을 다



▲반병렬 강의실 동판 제막식을 진행 중인 모습

해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학교가 외국학 연구와 융복합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단 기대를 전했다. 이 처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선뜻 1억 원의 기금을 기탁한 반 회장의 강의실 헌정식에 참석했다. 김인철 우리학교 교무처장(이하 김 처장)은 "반 회장의 나눔 정신이 우리학교 구성원에게 영원으로 기억될 바란단 희망을 밝혔다. 반 회장의 학교발전기금 기탁 소식을 접한 조유나(통번역·스페인어 19) 씨는 "반 회장처럼 학교를 졸업하고도 후배를 위해 좋은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나윤 기자 02myun@hufs.ac.kr

정현규 바이오플러스 회장 마스크 20만 장 기부해

이번 달 12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정현규(의·중어 77) 바이오플러스 회장(이하 정 회장)의 마스크 기탁식이 진행됐다. 기탁식엔 우리학교 측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 △김학태 재무·대외부총장 △이재원 대외협력처장 △김종호 중국학대학장이 참여했으며 기부자 측 정 회장과 승병욱 뷰티풀코리아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이소영 우리학교 발전협력팀장은 "기탁 받은 20만 장의 마스크는 각 학과 사무실과 행정부서로 배분돼 우리학교 구성원이 수령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마스크 20만 개를 전달한 정 회장은 "마스크 기부를 통해 사회적 기업 활동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며 △병원 △요양 시설 △지역 사회에 이어 모교에도 기부하게 돼 뜻깊단 소감을 밝혔다. 김 총장은 "바이오플러스



▲마스크 기탁식 참석자들의 모습

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 △제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다"며 "정 회장이 우리학교 동문이란 점에 학내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 회장은 1983년 우리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한 뒤 △벤처 △무역 △스파이닝 △환경 사업을 거쳐 2013년 의조기기와 생체재료 제조 기업인 바이오플러스를 인수했다. 바이오플러스는 생체재료 제품을 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간 바이오플러스는 이번 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방역 강화 필요성 제기돼

최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일부 건물에 대한 방역 및 통제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출입 관리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구조와 야간에 작동하지 않는 방역 관리 기기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캠퍼스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한 QR 체크인 △수기 명부작성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설캠의 경우 △대학원 △본관 △이의 건물은 각각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설캠 기숙사 국제학사(이하 국학)와 도서관은 관리시간 외에도 교내 구성원이 이용하지만 별도의 관리가 없다. 설캠 국학의 경우 출입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별도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해당 시간 동안 교내 구성원 및 외부인은 발열 확인과 출입명부 작성 없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와 QR 체크인 기기는 전원이 꺼져 작동되지 않

는다. 설캠 도서관의 경우엔 오후 9시 이후와 공휴일에 건물 오른쪽 입구로만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도 국학과 동일하게 열화상 카메라와 QR 체크인 기기가 기능하고 있지 않다. 김주영(서양어·스칸어 20) 씨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간에 대한 방역이 허술한 게 아쉽다"며 "학교 측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캠 총괄지원팀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출입 관리자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건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교수회관 △법학관 △본관에 설치된 자동감염장치를 다른 건물에도 확대 설치해 외부인 출입 통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 설캠과 동일하게 모든 건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학과 달리 글캠 기숙사 흡스동 건물 입구엔 출입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한다. 흡스동에 거주하는 김진실(자연·환경 19) 씨는 "기숙사 방역 시스템에 대해 크게 걱정해본 적이 없다"며 "다른 건물 또한 방역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이클래스 서비스 장애 문제 지속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서비스 장애에 불만을 표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실시 이후 이클래스(e-class) 서비스 장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간에도 이클래스 서버 다운은 계속됐다. 박서현(자연·생명 19) 씨는 "시험을 보던 중 화면이 멈춰 당황스러웠다"며 "수업 전에 서버가 다운돼 수업 링크가 공지되는 게시판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재학생 A 씨는 "비대면 수업의 질은 고사하더라도 기본적인 강의 수강 시스템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건 문제라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최원 IT 개발팀 직원(이하 최 직원은)은 서비스 장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주원인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이하 DB 서버) 과부하로 인한 응답 지연이라 밝혔다. 우리학교 DB 서버는 4년 전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기존량 대비 서비스 사용량은 수백에서 수천 배로 증가했다. 최 직원은 "대부분의 요청은 잘 처리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응답 지연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결책을 찾는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가 적은 새벽 시간에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는 주로 시스템 백업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이해를 구했다. 현재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되는 영역에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증설한다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직원은 "일회성의 예산 확보와 시스템 증설은 완벽한 문제 해결을 보장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는 병목현상은 한 곳을 해결해도 다른 곳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어 꾸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힘든 시기에 원활히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해 담당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학교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던 점을 알아달란 입장을 밝혔다. 오신현(경상·국급 17) 씨는 "학교에서 이클래스 시스템 증설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학교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정나윤 기자 02myun@hufs.ac.kr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 불나방 된 대학생들

최근 주식·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갖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2030세대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내 집 마련△목돈 마련△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주식·가상화폐 투자 이유로 들었다. 우리학교에도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한 학

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30 청년층의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우 리학교 학생들의 주식·가상화폐 투자 상황△건강한 투자를 위한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 사회의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주식 시장이 폭락하며 많은 국내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하락세였던 국내 주식 시장이 반등해 지난 1월엔 국내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종합 주가인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었다. 가상화폐 시장도 빠르게 커졌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24조 1,62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가상화폐 거래에서 개인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2030세대의 주식·가상화폐 투자 또한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주식 투자자는 2019년 대비 각각 약 69만 명, 74만 명의 큰 증가폭을 보였다. 2030세대의 비중은 가상화폐 투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이번 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신규 실명 계좌 설립자 249만 5,289명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각각 32.7%, 30.8%의 비율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2030세대의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은 삶의 안정성 추구하고 불안감 해소가 목적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재무적 목표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국 25세에서 39세 남녀 7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결혼자금 마련△은퇴자산 축적△주택 구입 재원 마련 등 안정적인 삶의 구성 요인들이 꼽혔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광복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뚜렷한 목적이 없더라도 나만 뒤쳐졌단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며 심리적 박탈감이 균중심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주식·가상화폐에 투자에 뛰어든 우리학교 재학생

우리학교 재학생 또한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합세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하 에타)에선 가상화폐 언급이 많아지자 지난달 가상화폐 게시판이 신설되기도 했다. 기존에 있던 주식 게시판에선 하루에 약 30개의 게시물이 활발하게 올라왔다. 학생들은 투자의 주된 이유로 수익률을 들었다. 재학생 A 씨는 군대에서 모은 돈을 이자율이 낮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주식의 배당수익률은 1.48%로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인 1.02%보다 높았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정재윤(통번역·독문 19) 씨(이하 정 씨)도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단 지인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성도 크다. 지난 2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경우 같은 달 23일 기준, 24시간 내 시가 변동 폭이 약 1,000만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큰 이유를 기업인의 말이나 사소한 정보에 쉽게 휘둘리는 개인 투자자의 균중심리로 들었다. 주식 역시 변동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정부의 규제나 재난 재해 등의 요인이 산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후인 2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33%의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큰 변동성에도 주식·가상화폐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주식·가상화폐 투자를 지속하는 이유로 해당 시장의 회복력을 꼽았다. 재학생 B 씨는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봤었지만 기다리면 다시 회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승세를 믿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 지적이다. 서창호 DGB대구은행 PB팀장은 "합리적인 장기 투자도 좋지만 미래는 예측 불가하므로 유연한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주식·가상화폐 투자는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학생 C 씨는 "주식투자 후 시세를 확인하느라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특히 원금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선 불안함이 크게 느껴져 힘들었다"고 전했다. 에타 주식·가상화폐 게시판에도 드물지 않게 수익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된다. 실제로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 중독' 증상을 호소한 상담센터나 병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늘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하 도박문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비트코인과 주식투자 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상담한 건수는 1,3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 건수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1,251건이었던 주식·코인 중독 상담 건수는 1년 사이 3,540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도박문제센터는 지난해와 이번 해 초의 증가 추세를 보아 앞으로 더 폭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아직까지 주식투자 손해를 본 적이 없다고 밝힌 재학생 D 씨는 "일확천금하고 싶은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안정적인 방식으로 투자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식 시장과 투자 종목에 대한 공부와 자료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보

가 없는 상태로 인기 종목에 투자하기보다 관심 있는 종목을 정해 시장의 흐름을 알아가거나 이와 관련한 강의를 듣는 등 공부가 필요하단 것이다.

◆ 건강한 투자를 위해선

재학생 대부분은 2030세대의 주식·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씨는 "주변에서 다 하니가 덩달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노동 수익으로 10년을 일해도 주택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며 이런 환경에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가상화폐 투자는 2030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주식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인 남영재(자연·통계 19)씨는 우리학교에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참여하고 싶으며 주식·가상화폐 투자 교육에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아직까지 투자 관련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이에 대해 김미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생지원처 팀장과 안경호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처 팀장은 "학생들의 건의가 있다면 투자 관련 금융 특강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설캠 총학생회 '외대에게'는 "우리학교에서 진행되는 모의투자대회는 있지만 금융 교육 특강이나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면 특강 개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투자를 위해선 금융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주식·가상화폐 투자 성공 사례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은 부풀려진 효과일 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실제 투자결과와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30세대의 건강한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98@hufs.ac.kr

2021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1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25 ~ 03.03	03.28	04.16	04.30
2회	04.29 ~ 05.05	05.30	06.18	07.02
3회	08.05 ~ 08.11	09.05	09.24	10.08
4회	10.21 ~ 10.27	11.21	12.10	12.24

* 원서접수 마감시간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문자역어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시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 제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의 외국인 교환 학생 수 또한 감소했다. 우리학교의 외국인 학생들은 이전처럼 우리나라 학

생들과 직접 교류하지 못하고 방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 현황 △ 외국인 학생이 말하는 학교생활 스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 현황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은 일정 기간 수업을 듣는 교환학생과 4년제 학부생으로 나뉜다. 국제입학관리팀에 따르면 이번 학기 우리학교 외국인 교환학생과 학부생 수는 각각 약 200명, 1,800명이다. 현재 외국인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10% 정도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학부생은 지난해 약 1,700명, 이번 해 약 1,80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외국인 교환학생 수는 2019학년도에 약 400명이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1학기엔 약 100명대로 감소했다. 국제입학관리팀에서 교환학생을 담당하는 교직원 A 씨는 “타 대학은 자매 대학 국가가 보통 △독일△스페인△영국△중국△프랑스로 한정됐지만 우리학교의 자매 대학은 이외에도 전 세계 곳곳 약 70개국에 분포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교환학생 수가 줄어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과 같이 학교에서 공지한 수업 방식에 따라 대부분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수강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학생들은 정규수업 외에도 한국어문화교육원(이하 한문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교환학생의 경우 한문원 수업이 자국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A 씨는 교환학생의 절반 정도가 한문원 수업을 수강한다고 전했다. 한문원에선 요일과 수준별로 나눠 순차 등교를 실시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이 말하는 학교생활

외대학보에선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외국인 교환학생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웨덴△에티오피아△중국△터키△태국△프랑스 국적을 가진 6명의 외국인 학생이 인터뷰에 응했다. 이중 학부생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키버(국제·국제 19) 씨△중국에서 온 양의(통번역·중국어 17)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외국인 유학생 학생회(GFA) 부회장△프랑스와 터키 이중국적자 데프네 카라켄리(경영·경영 19) 씨△B 씨다. 이어 교환학생은 스웨덴에서 온 스테판 사르키스(한국어언문화 19) 씨와 태국에서 온 수지라 푸과고(한국어 21) 씨다. 다음 취재원들의 답변은 우리학교 외국인 학생 전체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Q1. 우리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

양의 씨: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한국 친구들에게 중국 문화를 알리고 싶습니다.

스테판 씨: 스웨덴에 있을 때보다 한국어를 많이 연습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데프네 씨: 많은 국적의 학생이 모인 우리학교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만나 여러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Q2.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유학 생활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나요?

수지라 씨: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엔 친구들과 함께 이곳저곳 마음껏 놀러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친구도 많이 못 만나고 여러 활동도 취소됐어요. 또한 학교 시설도 다 사용하지 못해 아쉬움이 큼니다.

데프네 씨: 대면 수업을 할 땐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다양한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업이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돼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Q3.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비대면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은 없나요?

양의 씨: 녹화 강의의 경우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실시간 강의의 경우 인터넷 지연 문제가 자주 발생해 일부 내용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용을 복습할 수 없으니 난감하죠.

키버 씨: 온라인 수업은 공부에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수업의 질이 낮아졌고 이전보다 과제가 훨씬 많아져 부담됩니다.

Q4. 학교에서 문화 차이를 느낀 적이 있나요?

양의 씨: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대체로 효율적이지만 어떤 경우엔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느껴요. 조별 과제를 할 때 한국인 친구들은 항상 약속한 마감 기한보다 빨리 완성해요. 하지만 전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과제 작성에 시간이 더 걸려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Q5. 국제학생회(ISO)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됐나요?

스테판 씨: 한국 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인 버디 프로그램과 언어 교환 프로그램(GAT)에 참여했는데 자연스럽게 한국어 회화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인 친구에게 기초적인 스웨덴어를 알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여러 친구를 사귀었어요. 다른 교환학생 친구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Q6. 한국어문화교육원의 수업이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나요?

스테판 씨: 한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어요. 스웨덴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땐 쓰기와 읽기 실력을 늘릴 순 있었지만 회화를 연습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말하기에 자신이 없어 수업에 수동적으로 임했는데 선생님들이 우리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한국어를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셔서 회화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Q7. 학교 행정 업무 관련해서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나요? 학교 행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양의 씨: 글캠은 학교 시설의 표지판이 대부분 한국어로만 돼 있어 불

편했어요. 우리학교가 다양한 언어로 표지판을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키버 씨: 외국인 학생을 위한 공지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성적과 관련된 공지는 더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 씨: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수업료를 올린 학교 측의 결정이 당황스러웠어요.

◆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며 주로 비대면 수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 행정과 관련해서 △공지 부족 △등록금 인상 △언어장벽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국제입학관리팀에서 외국인 학부생을 담당하는 교직원 C 씨는 “△등록금 인상 △강신청 △이중전공 신청 및 변경 등 중요 공지는 주로 학사총합지원센터와 장학팀 공지다”며 “중요 사항은 국제입학관리팀에서 최대한 번역해 공지하려고 하지만 부서 간 업무가 다르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다른 부서에도 영어를 쓸 수 있는 직원이나 조교가 상시에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고 전했다. 한편 C 씨는 등록금 인상에 관해서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은 2019년에 이미 인상하기로 결정됐으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1년간 동결한 후 이번 해에 인상한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인상한 등록금도 타 대학에 비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다”며 외국인 학생의 이해를 부탁했다.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현지 학생과 교류하고자 우리학교에서의 생활을 택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경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이하 김 교수)는 “유학은 그 나라를 머리와 몸으로 느끼며 그 환경에 자신을 녹여내는 일이다”며 “현재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과의 교류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 지식 습득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보완 방안은 교수의 강의 녹화본 제공 의무화와 외국인 학생과의 선제 상담 시스템 운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희대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다국어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이에 A 씨는 우리학교 성평등센터에서도 통역사와 함께 외국인 학생의 상담을 진행했지만, 보안 문제를 고려해 영어나 중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상담사를 충당한 후 재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에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할 때다.

임채영 기자 02kore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04.23(금) ~ 05.10(월)	2021.05.28(금) ~ 06.14(월)
고사장 발표	2021.05.20(목) 15:00	2021.06.23(수) 15:00
면접전형	2021.05.22(토) 10:00 예정	2021.06.26(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06.04(금) 15:00	2021.07.09(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06.07(월) ~ 06.11(금)	2021.07.12(월) ~ 07.16(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언어언어문화(문화언어언어문화)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신청서접수 www.jinhak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합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정책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대학기 지원)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법률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이수특선실 (논문·출연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TEL. 02-2173-3521 ~ 2FAX. 02-217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후기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 2021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04.26(월) ~ 05.10(월)	2021.05.31(월) ~ 06.14(월)
고사장 발표	2021.05.20(목) 15:00	2021.06.23(수) 15:00
면접전형	2021.05.22(토) 10:00 예정	2021.06.26(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06.03(목) 15:00	2021.07.08(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06.07(월) ~ 06.11(금)	2021.07.12(월) ~ 07.16(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정책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대학기 지원)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법률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이수특선실 (논문·출연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TEL. 02-2173-3521 ~ 2FAX. 02-217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줄어든 학생회비 납부, 늘어난 학생 자치 부담

우리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며 학생자치활동을 전면 축소했다. 대면 행사를 자주 진행했던 단과대학(이하 단과대)과 학과 단위의 학생자치활동은 큰 타격을 입

었다. 학교 측은 각 단과대 학생회에 할당한 예산을 감액했고 대면 행사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 또한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학교 학생회비 사용처와 그 현황을 알아보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학과의 학생회비 변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학교 양캠퍼스(이하 양캠프) 학생회비 비용 및 사용처에 변화가 생겼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는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행사는 비대면 △간식사업△선후배 친목 도모△전공 관련 행사 등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진행됐던 행사가 △과 화식△대면 특강△MT였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 대부분 학과는 학생회비 비용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동결했고 그 비용은 20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회비가 이전처럼 납부되지 않아 일부 과에선 행사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홍시연(아시아 · 터키어 19) 터키어제어비언어과 학생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회비 납부율이 줄어 학생회비 예산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 후 원활한 대면 행사 진행을 위해 현재 행사엔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학대학도 이번 해 약 30% 정도의 학생만 학생회비를 납부해 어려움을 겪었다. 명혜민(일본 · 일언문 19) 일본학대학 학생회장은 “일본학대학 내에선 학생회비가 학회 지원금으로 보통 사용되는데 학생회비가 적어 학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의 경우 대다수 과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와 이번 해 학생회비를 건지 않거나 환급했다. 그 이유로 과 학생회장들은 △대면 행사 불가능△학생회비 납부를 감소△행사 참여 저조를 꼽았다. 실제로 일본어통번역학과는 이번 해 학생회비를 1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학생회비 납부율이 낮아 학생회비를 받지 않고 행사를 전면 중지했다.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와 영어통번역학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학생회비를 환급했다. 이지현(통번역 · 영어 19) 영어통번역학부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수업 진행 여부가 확실치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이 감소해 모두 환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학생회비를 걷은 과도 학생회비 납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독일어통번역학과△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태국어통번역학과는 2019년 학생회비 납부율이 100%에 수렴했으나 이번 해 50% 내외로 감소했다.

◆ 학생회비에 대한 학생과 학생회의 상반된 견해

외대학보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간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 · 21학번 학생회비 납입 유무를 묻자 50%의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납입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론 ‘추후의 대면 행사’가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현재 진행 중인 과 행사 참여’가 30%로 잇따랐다. 반면 학생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학생들 중 70%는 그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면 행사의 부재’를 꼽았다.

학생회비 실효성에 대해선 68.6%의 학생이 학생회비로 진행된 행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간식사업 등 일회성 사업이 무의미함’이 79.2%에 달했다. 반면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31.4%의 학생들 중 72.7%가 ‘과 특성에 맞는 행사를 진행해서’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대하는 행사에 대해선 83.3% 비율의 학생이 ‘과에 특성화된 진로 및 수업 관련 도움’을 선택했다. 임재휘(국제지역 · 아프리카 21) 씨는 “학생회비를 납입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과 차원에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코로나19

해 이수현(통번역 · 태국어 17) 태국어통번역학과 학생회장은 “행사를 위해 학생회비를 사용하려 해도 학생회비 납부 인원만을 고려한 행사를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 학생회비,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학생회비는 과거부터 학생사회 내 주요 문제로 거론돼왔다. △과별로 상이한 학생회비 금액△추가 금액 납부△불투명한 사용 내역 등의 문제는 학생들이 선뜻 학생회비를 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 2017년엔 전 설캠프 부비상대책위원장(이하 부비대장) A 씨는 공금 사적 유용으로 부비대장직에서 제명된 바 있다. A 씨는 재정 사무를 담당하며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다. 이후 각과는 SNS에 학생회비 납부 전 계획을 상세히 기록하고 행사별 학생회비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지해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투명한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는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입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글캠프 마인어통번역학과는 2019년엔 25만 원이었던 학생회비를 지난해와 이번 해 각각 20만 원과 18만 원으로 낮췄다. 이후 신입생에게 학생회비 안내문을 송부하며 학생회비 편성과 집행을 투명하게 진행한 결과 약 90%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납부했다.

이외에 학생회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과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행사 기획이다. 이탈리아어과와 마인어통번역학과는 △비대면 선배와의 만남△과 특색에 맞는 굿즈 제작△취업 및 유학 관련 설명회를 계획해 90%대의 학생회비 납부율을 기록했다. 박성준(서양어 · 이탈리아어 20) 이탈리아어과 회장은 “진행할 수 있는 행사가 한정된 만큼 앞으로도 참여율이 높을 만한 행사를 기획해 과 학생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박수민(사범 · 중교 19) 씨는 “학생회비 납부율이 예전처럼 높진 않지만 학생들을 위해 과 차원에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사회 내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학생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불 꺼진 학생 자치 공간

사태 종식 후 진행될 대면 행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 학생회 측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와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민승(영어 · ELLT 20) ELLT학과 학생회장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기획의 한계가 있다”며 “매번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행사 형식이 획일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혜수(서양어 · 독일어 20) 독일어과 비대위원장은 “비대면 간식사업은 학생 참여도가 매우 높으나 다른 비대면 행사의 경우 참여율이 현저히 적다”며 과 특성에 맞는 행사를 준비하기보다 간식사업 등의 일회성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저조한 학생회비 납부율이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태국어통번역학과는 이번 해 학생회비 납부율이 30% 정도에 그쳤다. 이에 대

생각보다 너무 달랐던 중국

난 우리학교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2019년 한 학기 동안 중국 충칭의 사천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전까진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또한 현지에서 중국어 실력을 기를 수 있던 생각에 교환학생을 신청했다.

충칭에서의 학교생활은 우리나라와 달랐다. 교환학생 전용 수업 외 다른 중국어 수업까지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방면으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평일엔 아침 수업만 신청해 오후엔 개인시간을 가졌다. 수업이 없는 화요일을 이용하면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여행을 다닐 수도 있었다.

학교생활이 아닌 일상생활에 있어선 중국 사람들이 평소에도 건강한 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장에 가면 광장무를 추거나 태극권을 하는 사람이 자주 보였다. 또한, 학교 운동장과 정월엔 △농구△달리기△배구△배드민턴△축구 등 여러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매일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며 취미 생활을 한다.

또한, 중국 곳곳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기계가 비치돼 자주 차를 마실 수 있는 점도 인상 깊었다. 중국 사람들은 차가운 것을 선호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항상 시원하게 마시던 △물△음료수△술△커피 등도 중국에선 미지근하게 마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매일 뜨거운 물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적응돼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도 차가운 물을 마시지 않게 됐다. 중국에서 살아 보자 의외인 부분도 많았다. 중국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 핸드폰 하나로 △주문 및 결제△택시△세탁 등의 서비스를 우리나라보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장소와 길거리가 깨끗했다. 중국은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많고 청소부도 많아 관리가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여행할 때 항상 숙박에 문제가 있었다. 중국에서 외국인인 사교나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3성급 이상의 호텔에서야 묵을 수 있다. 하지만 난 돈이 부족해 외국인을 받아주는 게스트 하우스나 여관을 찾아야 했다. 중국 여행을 할 때 외국인 투숙객을 받아주는 숙소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한다. 중국에 가기 전엔 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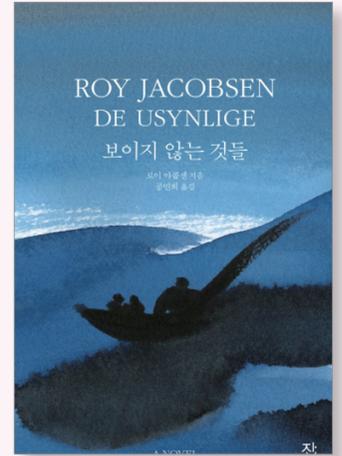
을 가질 생각을 했다. 그러나 교환학생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선택지를 알게 됐고 해외에서 살고 싶단 생각도 하게 됐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내게 어느 곳에서든 잘 적응하고 지낼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줬다.

글 · 사진 진정식(중국 · 중국어언문화 16)

노르웨이

책 '보이지 않는 것들'

- 섬이란 작은 사회 속에서 -



책 '보이지 않는 것들'은 노르웨이의 외딴 섬인 '바뢰이 섬'에서 살아가는 바뢰이 일가 사람들의 고립된 삶을 다뤘다. 작가 '로이 야콥센'은 책의 전반부에선 바뢰이 섬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다. 주인공 '잉그리드'는 아버지 '한스'를 도와 섬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면서도 물고기를 잡고 오리털을 모아 교역소에 파는 것을 지켜봐준다. 그래서 육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섬에 부두를 지으려 한다. 그러나 부두는 완성되지 못했고 한스는 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섬사람들은 섬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섬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

책의 후반부에 고립된 섬 내의 만연한 차별이 무너지는 모습이 그려진다. 노르웨이의 작은 섬인 바뢰이 섬에도 차별은 존재한다. 자신의 의지가 없어 서서 식사를 해야 했던 미혼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자 그제야 의자를 받는다. 이런 차별은 누군가의 △아내△여동생△딸이 아닌 여성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무너진다. 여성들은 섬의 모든 일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이야기의 후반부를 이끌어간다. 섬은 육지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섬이 나아가는 방향은 육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섬은 우리사회처럼 서서히 변화한다.

유려한 문체와 충격적인 반전을 기대하는 독자는 책을 읽고 지루할 수 있는 줄거리에 실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가가 그린 노르웨이 섬사람들의 섬에 대한 마음과 평등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은 독자에게 소중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의 어제와 오늘 ⑤

외대의 친선 교류 - '외서전'에서 '삼동제'까지...



▲1976년 외서전 개막식의 모습



▲1976년 외서전 축구경기의 모습



▲2019년 삼동제 개막식의 모습

'교류'란 문화나 사상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로 서로 다른 물줄기가 섞여 흐른다는 뜻이다. 이런 교류를 통해 새로운 걸 습득하고 다음을 이해한다. 이어 사교의 지평을 넓혀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다. 우리학교도 개교 이래 다양한 행사를 통해 타 학교와 교류하며 발전 지향적인 발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개교 직후부터 △동아리△모의유엔총회△외국어 원어 연극을 매개로 타 학교와 문화 및 학술 교류를 이어 왔다. 우리 학교가 타 학교와 진행한 최초의 정기 교류는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와의 스포츠 교류전이다. 1968년 처음 진행된 교류전은 2년간 농구 경기만 열렸으나 이후 1970년부터 경기 종목 확대에 교환 경기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 대

학의 상호 친목을 위해 시작된 이 교류전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참여하는 대회로 확대됐다. 1976년 10월 27일 개최된 행사부터 '외서전'이란 명칭을 사용해 제1회 대회가 진행됐으며 우리학교의 학도호국단이 주최하고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운동장에서 개막식이 열렸다. 우리학교와 서강대엔 대외적인 운동부가 없었지만 두 학교가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을 발휘해 스포츠로 친선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인기 구기 종목인 축구와 야구 경기로 이뤄진 이 행사는 양 대학의 친선과 유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고 학술 교류로 발전한 행사로 평가됐다. 서강대의 주최로 진행된 1977년 제2회 대회에선 △축구△배구△핸드볼△테니스 4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타 학교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

해 나가기 위한 교류전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에 처음 개최된 '삼동제'가 바로 그것이다. 제36대 설캠 동아리연합회는 2019년 9월 25일 잔디광장에서 삼동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삼동제는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우리학교 중앙동아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연합행사다. 2018년 동대문구에 위치한 세 대학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여론에 따라 각 대학의 총학생회간의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에 연합스포츠동아리에 의해 계획된 첫 삼동제가 개최됐다. △경희대시립대△우리학교는 각각 △공연 및 문화 서비스 중심의 '악동' △체육 행사 중심의 '역동' △학술 및 전시 중심의 '감동'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2019년 9월 25일 우리학교에서 개막식으로 시작해 26일 시립대 행사를 거쳐 30일 경희대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삼동제 행사는 체육 친선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교류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기간 동안 조성한 기부금을 동대문구 지역 단체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교류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타 학교와 교류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던 학생들과 학교의 의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행사로 실현되고 있으며 학교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대두된 모병제, 모두의 안보를 위한 길은?

최근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모병제는 군인을 강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를 받아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다. 이번 달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하 이 전 대표)는 유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 모병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모병제 도입은 휴전국인 우리나라에서 군사력 증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윤선 세종대학교 외교·안보연구 센터장을 만나 모병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송윤선 세종대학교 외교·안보연구 센터장

Q1. 모병제를 실시했을 때의 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군대는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첨단무기체계에 무장한 전문화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로 복무하는 징집병이 아닌 상대적으로 훈련에 충실한 장기 직업군인제를 시행할 수 있는 모병제가 필요해요.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가능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모병제를 통한 장기복무제 실시는 연간 총원소요를 줄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Q1-1. 우리나라에선 1960년부터 징병제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징병제를 고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예산 절감 측면에선 비용이 많이 드는 첨단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값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전후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높은 군사력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또한 100만 이상의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규모의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군인을 모집할 수 있는 징병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Q2.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적정 병력 유지를 위한 군 징집률은 90%에 육박합니다. 모병제 도입이 군 병력 충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모병제 도입은 군 병력 충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징집률을 100%로 하더라도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죠. 모병제로 모집된 군인은 단기 복무를 하는 징집병보다 더 숙련도가 높아 징집병의 2배에서 3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죠.

Q3. 대만과 미국은 모병제를 시행하는 대표 국가입니다. 해당 국가의 모병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현재의 군사력이 궁금합니다.

먼저 대만은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국민의 병역회피 풍조가 만연해졌어요. 이에 2008년부터 모병제를 시행하게 됐죠. 그러나 그 당시엔 지원병이 많지 않아 모병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징집병 비율 자체를 줄이려 노력해 2019년부터 다시 모병제로 전환했어요. 그

리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 후 대규모의 병력충원이 필요없어져 1973년에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모병제 실시 후 군사력이 상승했어요. 특히 미국은 모병제 전환 이후 초일류 수준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죠. 모병제 전환 후 군의 전문성과 작전능력이 향상된 게 원인이라 봅니다.



▲ 징집된 군인들의 뒷모습 (출처: 경향신문)

Q4. 2018년부터 모병제로 바뀐 대만은 모든 남성을 의무복무기간 없이 4개월의 의무 군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병제를 하고 있음에도 군사교육을 필수로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사시 국민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닌 제도인 국민개병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청년들에게 의무 군사교육을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병역의무를 상기시키고 유사시 군에 입대해 신속히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유사시 국민 총동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국민개병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Q5.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모병제를 실시하다 징병제로 전환했고 대만에서도 징병제를 부활시키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각각 1901년과 1948년부터 모병제를 실시하다 2016년과 2018년에 다시 징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2010년부터 시

작된 러시아의 에스토니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모병제만론 군 병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대만의 경우 징병제를 실시했을 때 보다 군의 전문성이 향상돼 전투력이 향상됐지만, 국민의 지원율 저조로 병력 충원율이 90%에 머물렀어요.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엔 일각에선 다시 징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Q6.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방예산은 약 3배 증가했습니다. 모병제를 실시할 시 지급해야 하는 병사 급여가 증가해 지나치게 국방예산이 상승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우려할 수 있겠지만 서서히 나아질 거라 봅니다. 국방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40%대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만약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처음엔 군인 개인당 인건비가 3배 정도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병력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결국 현재 인건비 수준인 40%대로 돌아올 거예요. 더불어 매년 6%에서 7%인 국방비 증가율보다 3%대인 낮은 인건비 증가율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병제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Q7. 모병제 외에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징병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 적합한 제도는 징모혼합제입니다. 현재의 징병제를 기반으로 하되, 부족한 병력 규모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하사로 훈련에 참여하는 유급지원병으로 충원하는 방안입니다. 유급지원병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안보에 필요한 전체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징모혼합제를 실시할 경우 양질의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유급지원병의 지원을 향상방안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은 병역충원제도를 징병제와 모병제로 구분해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징모혼합제 등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 5. 3(월) ~ 5. 14(금)	2021.6. 7(월) ~ 6. 18(금)
면접전형	2021. 5. 22(토) 10:00	2021. 6. 26(토) 10:00
입력자 발표	2021. 6. 4(금) 16:00 예정	2021. 7. 9(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1. 6. 7(월) ~ 11(금) 예정	2021. 7. 12(월) ~ 16(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모집 전공		
교육학 석사 (아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어린어리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독서논술교육	•혁신미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 (유패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학 문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문의 02-2173-2419)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e.hufs.ac.kr) 입학모집요강 및 입학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아간) 2021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05.03(월) ~ 05.14(금)	2021.06.07(월) ~ 06.18(금)
고사장 발표	05.20(목) 15:00	06.23(수) 15:00
면접전형	05.22(토) 10:00 예정	06. 26(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6.03(목) 14:00	07.07(수) 14:00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언어학과
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가.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료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환과), 한국어언어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반복되는 산업재해,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개방형 컨테이너에 몸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뒤이어 이번 달 8일엔 현대중공업 하청 업체 직원 장 씨가 원유운반선의 원유 저장고 상층부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없이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 해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하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이 의심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 노동 현장 속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중대재해법에 대해 알아보자.

◆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편향된 죽음

노동자가 안전망 없이 일하다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는 계속돼 왔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원 김용균 씨가 태안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즉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규정상 야간엔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인력 수급 문제로 김용균 씨는 혼자 근무에 나섰다. 당시 입사 3개월 차였던 김용균 씨는 업무를 숙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위험 시설을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앞서 2년 전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직원인 김 씨가 달려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즉사했다. 안전규정상 위험한 선로작업이나 수리는 열차 운행이 끝난 심야에 2인 1조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위 사례들은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의 고질적 문제인 '위험의 외주화'를 잘 보여준다.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청 기업은 상시 필요하지만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떼어내 하도급 형태로 다수의 하청 업체에 넘긴다. 원청 기업은 재해를 낮춰 산업재해 보합률을 감면받고 싼 가격에 하청 업체를 입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해야 할 책임까지 하청 업체에 떠넘긴다. 그러나 하청 업체는 노동자 안전 관리가 아닌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소작업인원을 쓰고 안전망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줄인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김용균 씨와 김 씨의 경우처럼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안전망이 미비한 작업 환경으로 내몰린다.

원청 기업이 하청 업체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구조는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지난해 원·하청 산업재해(이하 산재) 통합 통계 산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하청이 1.77명으로, 원청의 0.25명보다 약 7배 많았다. 산재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발전소와 건설업에선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의 경우 2015년부터 이번 해 2월까지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 253명 중 하청 업체 직원이 97%인 246명으로 파악됐다. 건설업의 경우 최근 5년간 9개의 기업에서 산재로 인한 103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 중 사망자의 82.5%인 85명과 부상자 전부가 하청 노동자였다.

◆ 반복되는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결책이 될 수 있나

구의역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많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려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더 이상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선 안 된단 의견이 모였다. 이에 2018년 12월 27일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원안 속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징역 1년의 하한선을 신설하는 조항은 빠졌다. 하청 금지 영역에서 하청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도 제외됐다. 김용균법 적용 후에도 여전히 위험 작업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는 것

에 큰 제약이 없고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가 져야 할 책임은 가벼웠다.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2019년 855명에서 지난해 864명으로 법안 적용 후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으려면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6월 처음 발의됐고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원안이 발의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거쳐 최종안이 통과되기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원안보다 사업주의 처벌이 약해지고 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 사고를 낸 회사 대표나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원안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벌금'보다 대폭 하향됐다.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때 징역형으로 실행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 이후 구의역 풍경 (출처: 연합뉴스)

나와야 한단 게 핵심이다"며 "하한형이 1년 이상이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여전히 책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졌고 50인 미만 중소기업엔 3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산재 사망자 1,571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23.9%인 375명이었고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중은 61.5%인 966명이었다. 이에 작은 사업장이 방치되거나 기업들이 원청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편법이 등장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다음 해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중대재해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이번 달 중 확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요 쟁점에

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에 대표이사 아닌 안전보건책임자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안전보건책임자란 실무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을 우려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도 주요 쟁점이다. 경영계는 김용균법을 참고해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용역과 하청 노동자를 포함해 하청 업체와 위탁계약 등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원청이 책임을 지고 안전 의무를 다 해야 한단 입장이다.

◆ 벼랑 끝의 노동자들,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하루 평균 2.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대리기사 및 배달원 등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노동자가 늘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 사고 발생 빈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3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곤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를 기록했다.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노동자를 지켜줘야 할 법안이 줄속으로 처리된단 비판도 일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치권에서 노동자의 산재 사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 그때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슈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며 "김용균법과 중대재해법이 논란이 많았던 이유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법안 형성 과정에서 각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충분한 기간 동안 토의돼야 한단 것이다. 또한 박준선 민주노동총조직원장(이하 박 국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비용 절감이란 기업의 이해와 협상될 수 없는 가치임을 강조했다. 박 국장은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나오려면 국민 이슈에 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계층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www.사사한줄토익.com

사회 전국택배노동조합 파업 돌입

이번 달 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의 '택배 차량 출입금지' 방침에 대해 택배사와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온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파업은 총파업이 아닌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이 될 예정이며 파업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경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이번 달 10일, 코스피 지수는 3249.30으로 거래를 마치며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20여 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 추진으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여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임명

이번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44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 김 후보자)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처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라며 임명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야권에선 이번 임명을 두고 정치와 이념 성향이 같은 사람을 조직원으로 임명하는 '코드 인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 세계보건기구, 중국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이번 달 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안센스화이자에 이어 비서구권 국가가 개발한 백신 가운데 첫 사례다. 시노팜은 앞으로 국제 백신 공동구매·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 개념 확대의 효시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4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법적 가족 개념을 확대해 복지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이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기존 가족 논의에서 소외됐던 이들과 4차 계획의 △내용△한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족들

현행법상 △동거△사실혼△위탁가정 등은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민법 제79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가족 정책의 토대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도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한정된 범주는 다양한 이들의 삶에 의도치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 먼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어려움을 들 수 있다. 2015년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어렵단 사실이 공론화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하 사랑이법)이 신설됐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친모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사랑이법이 적용되며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법원에서 한 번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과정이 간소화됐지만 미혼부 출생신고 과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사랑이법은 '친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엔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2016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친모의 인적사항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사랑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해 1월 친모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사랑이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친부는 교육청과 동사무소를 전전하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사랑이법의 조건에 발목 잡혔다. 친모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8살이었던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뤄져 초등학교에 다녔다면 교육 당국이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테지만 피해 아동은 취학통지서조차 받지 못했다.

기존 가족 개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가정구성원 범주에 들어가는 대

상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이때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가족들의 동거 사실 인식△동거 기간△양가 가족 행사 참여 여부 등에 의해 비혼 동거와 구분된다. 권민경 변호사는 "부모 남매 배우자를 소개하지 않았거나 서로의 가족들과 유대가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률혼과 사실혼 밖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면 가정폭력이 아닌 폭행으로 분류된다. 가정폭력과 폭행은 사후 조치에서 차이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법률 자문 △보호시설 입소△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교육△생계△현물 등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비혼 동거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처벌과 조치 방법은 현행법상 규정돼 있지 않다.

이 외에도 기존 가족 개념으로 인한 차별은 △연급 △의료△주거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현행 가족 정의에서 소외된 이들은 고용·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응급수술 시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도 없다. 주택 공급 정책이 신혼부부 중심으로 돼 있어 비혼 동거 가정은 혜택받기 힘든 단 지점도 있다.

◆ 가족의 포용성 넓히는 건강가정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은 기존 가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이란 비전 아래 모든 형태의 가족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사회 환경 조성△안정적 생활여건 보장의 영역별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4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의 형태와 구성 변화에 발맞춘 대응책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하 정 장관)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사랑이법 후속 조치△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등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다양한 가족 내 폭력피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비혼부가 친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와 친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 양육 여건을 조성해 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단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4차 기본계획에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은 사안은 부성 우선주의 개선이었다. 현행 민법 제781조에선 일반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걸 예외적인 경우로 설정했기에 비혼·한부모 가정 등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차별적이라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혼인신고가 아닌 출생신고 때 부부가 아이의 성을 협의해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4차 기본계획은 △가족 구성 방식 다양화△가족 다양성에 대한 높은 수용도△혼인 감소 및 만혼화 현상 등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대응한 단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모든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선

4차 기본계획을 통해 더 많은 형태의 가족이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지만 성 소수자와 비혼 단독 출산은 가족 범주에서 제외됐던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동성 부부는 여전히 법으로 인정받지 못해 △금융△복지△조세 제도 등에서 차별을 겪고 배우자의 입원이나 수술에도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혼하지 않고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

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자발적 비혼모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 비혼모가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차원 정자는 행이 없어 정자를 수급할 수 없는 등 현실적 제한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가족 정책은 다양성 인정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동거 인구 급증에 따라 시민연대협약인 팩스(PACS)를 도입했다. 팩스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가족수당△사회보장급여△소득세 산정 등에서 혼인 가구와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다. 팩스로 이어진 가구는 혼인 가구와 동일하게 출산 및 사망 관련 휴가 보장과 유산 상속이 가능하다. 독일에서도 2001년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 비혼 동거 가족 혹은 동성 부부 등에게 △가족의 권리△부양 임무 △채무 연대 책임 등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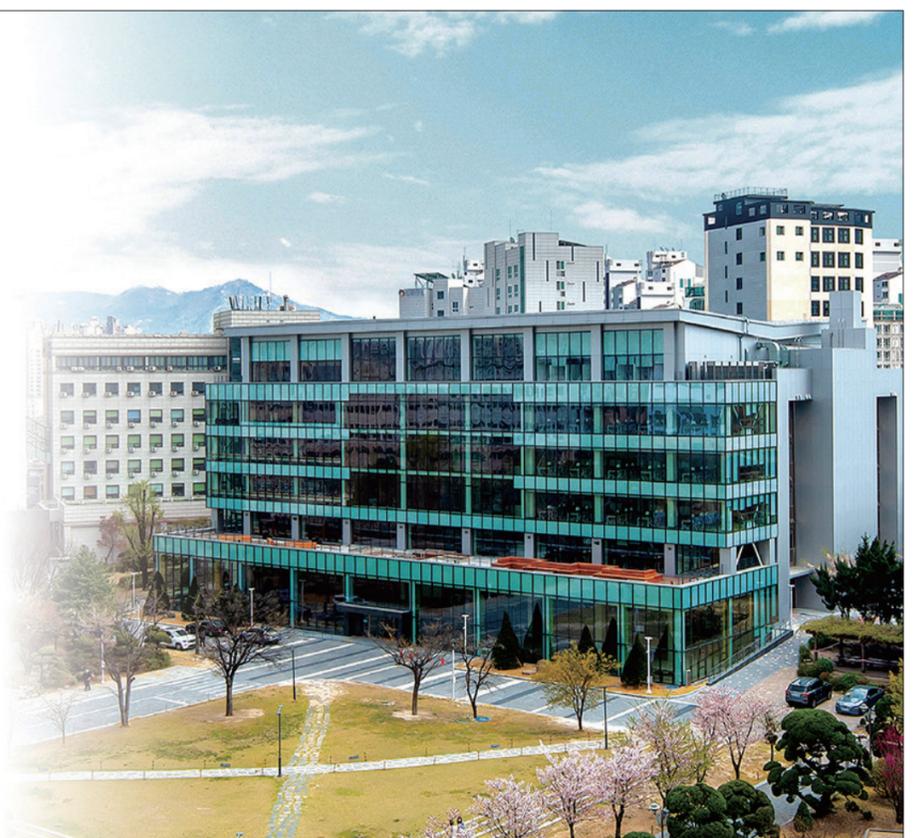
한편 4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가족 관련 정책의 기본 틀로 작용할 뿐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제할 수 없다. 또한 기본계획 내용이 타 부처 소관 법률 개정과 맞물려 있어 다양한 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린다. 더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없도록 정부의 빠른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경주 기자 02gjwo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학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탑실크상사
대표 이원규(스페인어)





현장 취재에서 찾은 가치

“신문 기사는 책상에 앉아 인터넷과 전화로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다”. 지난해 참여했던 교내 언론인 초청 강연에서 한 신문 기자로부터 듣게 된 자조 섞인 농담이다. 외대학보 정기자 초반엔 그 농담대로 기자 생활을 편히 해보겠다고 꾀를 부렸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기사를 완성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 접근성이 높고 취재원을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기삿거리를 찾아 헤맸다. 이렇게 여유와 평안 속에서 작성한 기사는 내게 이른 퇴근과 휴식을 선물했다. 하지만 내가 얻는 보람은 그리 크지 않았다. 우리학교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사를 쓰고자 했지만 고단한 현실 속에서 애써 이 목표를 외면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기사다운 기사를 쓰고 싶었다. 기사에 풍부함을 더하고 취재원의 목소리를 왜곡 없이 담고 싶었다. 이를 위해선 많은 노고가 수반되어야 함을 깨닫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직접 현장 취재에 나섰다. 기자증을 목에 건 채 취재원에게 명함을 내밀며 외대학보 기자라고 날 소개할 때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낯선 취재원과 인터뷰를 할 때면 잔뜩 긴장해 목소리가 떨리곤 했다. 취재 내내 심신이 힘들었지만 이 과정이 가져다준 결과는 귀중했다. 이전엔 기사 분량을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던 내가 취재를 다녀온 뒤론 초고 분량이 넘쳐 고민하는 일이 잦아졌다. 조판 날엔 글자 크기를 줄여가며 기사 내용을 지면에 빈틈없이 채워 넣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면의 소중함을 느꼈고 내게 주어진 지면 기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인물 기사를 취재하며 김현우 SBS 앵커(이하 김 앵커)를 만났다. 16년 간 기자로 일하며 어디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냐는 질문에 김 앵커는 “기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고 세상이 교과서다”라고 답했다. 아직 정기자 직함을 단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 말에 크게 공감이 갔다. 정확한 내용으로 기사를 쓰기 위해 기사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다. 스키대회전장스고내부총학생회실소방승국 등 취재를 다니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외대학보 기자가 아니었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값진 경험들이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사건의 진가를 찾고 의미 있는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



임세은 기자

[책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읽고] 슬픔이 다른 슬픔과 연결될 때

김동준 씨(이하 김 씨)는 덩치가 크고 여린 성격을 지닌 아이였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아플 때 손수 죽을 꿰어줄 정도로 의젓했다고 어머니인 강석경 씨(이하 강 씨)는 회상한다.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인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단 얘길 들었을 때 많이 싸웠지만 졸업 전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해간단 말에 꼬리를 내렸다. 김 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해 가을, CJ 그룹 입사가 결정됐다. 특성화고 학생은 취직이 결정된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이란 신분으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 씨 역시 현장실습을 하며 미리 CJ 그룹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어느 날 김 씨는 출근 전 강 씨에게 회사 가기 너무 싫고 무섭다고 말한다. 강 씨는 모두가 회사 가기 싫어한다며 힘든 것도 견딜 줄 알아야 한단 내용의 말로 김 씨를 달랠다. 그리고 그 주 주말 김 씨는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투신하기 전 김 씨는 회사 선배로부터 업무 관련 실수로 인해 지속적인 모욕과 구타를 당했다.

작가 '은유'는 김 씨의 가족과 특성화고 관련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제도의 문제점과 사회 구조화된 폭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통계적으로 볼 때 기업에 취직하기 쉬운 특성화고는 보통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다. 그러나 취직의 이점과 달리 이들이 현장실습생이란 신분으로 파견되는 직군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

다.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 시간은 지켜지지 않고 위험한 일들을 주로 맡기는 경우가 많다. 김 씨의 경우처럼 현장실습생을 향한 폭력도 발생한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이 이런 환경에 처한 원인을 노력 부족으로 치부한다. 또한 노력 부족이란 명목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정당화한다. 정당화된 현장실습생을 향한 폭력은 사회 속에서 구조화된 김 씨와 같은 희생자를 낳는다.

현장실습생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약자가 될 수 있다. 사회 최약층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논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 고통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단 사실을 받아들일 때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신문 속에서만 보던 타인의 사건이 아닌 우리의 사건이 된다. 우리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슬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언론은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초반엔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보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에 눈을 돌린다. 대중은 이에 따라 관심을 거두지만 유가족의 슬픔과 억울함은 그대로다. 비극 속에 갇힌 이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 불태우고 있기 위해 우리 그들의 슬픔을 공부해야 한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을 보고] 소외계층을 대하는 사회의 민낯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을 보고] 소외계층을 대하는 사회의 민낯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은 박찬욱 감독의 복수를 주제로 한 3부작 영화 중 가장 어둡다. 청각장애인인 주인공 '류'는 몸이 아픈 누나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공장에서 일한다. 그러나 공장에서 해고당해 수술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여자친구 '영미'와 함께 자신을 해고한 사장 '동진'의 딸을 유괴한다. 류와 영미는 돈을 받으면 바로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누나와 동진의 딸이 죽는다. 누나를 잃은 류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모든 사람을 향한, 딸을 잃은 동진은 류와 영미를 향한 복수를 시작한다.

이 영화는 관객을 불편하게 만든다. 어느 등장인물도 좋은 결말을 맞이 못했고 관객이 인물에 감정 이입하기 어렵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영화 초반엔 주인공이며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인 류에게 공감한다. 그러나 영화 중반부에 동진이 서사의 중심이 되자 관객들은 딸을 잃은 그에게 이입하게 된다. 결국 관객들은 더 이상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게 돼 제 3자의 자리로 밀려난다. 또한 감독은 관객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없도록 한다. 류의 시점을 묘사할 때 사람의 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향처리를 한 뒤 한 컷 늦게 자막을 띄워 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표현했다. 류가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한발 늦게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관객도 영화에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 인물의 대사를 알기 어렵다.

결말에서 심적 불편함은 극대화된다. 소외계층 노동자인 류와 복수를 위해 돈이란 기득권을 반납한 동진은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그들의 시체는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져 인도적으로 수습되지 않은 채 영화는 끝난다. 이 장면은 잔혹한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기득권이 없는 사람의 죽음엔 관심을 갖지 않는단 것을 의미한다. 이번 달 초 보도된 두 20대 청년의 사망 사건에서도 이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사망한 두 청년은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과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이다. 그러나 '한강 의대생'과 '평택항 알바생'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확연히 달랐다. 이번 달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트렌드에서 한강 의대생과 평택항 알바생의 이름을 키워드로 비교한 결과 한강 의대생의 키워드 검색량이 약 50배 더 높았다. 사람들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기득권의 소식에 더 주목한다. 약자의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기득권의 불행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현실이다.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불편함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단 사실에 쓸쓸할 뿐이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1055호 학보를 읽고 서로 배려하는 세상을 꿈꾸며

엄성희(중국·중언문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에 발맞춰 우리학교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그중 비대면으로 진행한 총장선출 관련 학생총투표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재선거를 가장 큰 도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비대면으로 선거를 진행하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목표 투표율인 50%에 도달하며 학생의 자치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시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결과 또한 초래했다. 특히 교내 야간 소음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불만은 우리학교 재학생 의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꾸준히 접했다. 문제의 원인과 자세한 상황을 많은 학생이 알 수 있도록 다뤄준 외대학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학생들이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의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기획 기사에선 최근에 이슈였던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나뉜 20대 유권자들의 표심에 대해 다뤘다. 단순히 이와 관련된 사실만을 전달하기보다 우리학교 학생 5명의 의견을 제시해 학생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던 점은 좋았다. 하지

만 설문조사를 통해 더 다양한 학생 의견을 조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심층기사로 다른 우리학교 언어 교육에 대한 학생 의견과 대학생 사교육에 대한 내용도 매우 흥미로웠다. 나 또한 언어 전공생으로서 학교 수업과 국가 공인 인증 시험을 위해서 사교육을 고민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언어 전공생만의 고충뿐만 아니라 이중 전공으로 언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다룬 점도 기억에 남는다. 기사에선 우리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이러닝(e-Learning)'에서 다양한 어학 강좌를 지원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학생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란 점을 꼬집었다. 나도 우리학교에서 지원하는 어학 강좌가 있다란 걸 이번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많은 학생이 이를 활용하길 바란다.

이번 호를 통해 우리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사회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아직까진 우리가 직접 만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계속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1055호 학보를 읽고 끝나지 않는 우리학교의 문제들

정유일(융합인재·융합인재 21)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달 5일은 어린이날이자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다. 여름은 뜨거운 햇살과 장마로 많은 사람의 불만을 사는 계절이기도 하다. 외대학보에선 여름 속에서 들리는 불만과 함께 우리학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1055호는 우리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담았다. 먼저 사범대학 소속 학교의 입학정원을 30% 감축한 단 기사가 인상 깊었다. 기존 학교를 외국어 교육 학부 내 전공으로 변경한단 사범대학 개편안이 이사회를 통과한 사실을 담았다. 학생과 학교의 입장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문제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의 소용 단절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속히 해당 문제에 대해 학교와 학생이 소통해 합의점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편 외대학보는 고성방가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담은 교내 야간 소음 문제도 다뤘다. 학생 의식 개선을 강조한 좋은 기사였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숙사생이 아닌 고성방가 학생에 대한 해결책이 없던 거였다. 기숙사생은 징계위원회로 처벌받지만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의 처벌 규정은 없었다. 해당 기사를 통

해 학생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심층 면에선 교내 폐기물 처리 기사를 통해 교내 문제 전달했다. 기사에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폐기물 배출 상황을 비교해 학생들의 등교 횟수가 줄었음에도 생활 폐기물 배출의 감소가 크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우리학교가 앞으로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려주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했다. 예산 문제로 글로벌캠퍼스의 미화원 인원을 감축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도 기사에 추가했으면 더 풍성한 글이 됐을 것 같다.

1055호에선 우리학교의 개선 사항을 주로 다뤘다. 여전히 우리학교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단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선할 부분만큼 앞으로 발전할 기회도 많다고 생각한다. 외대학보가 학교의 밝은 부분만을 기사로 다루는 날까지 우리학교가 매일 성장하길 바란다.



빈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우리나라의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미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윤여정 배우가 최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영화 '미나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영화에선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 땅으로 이주한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생활을 다뤘다. 이민자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면 낯선 타지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란 걸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같이 새로운 꿈을 찾아온 외국인들을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외국인은 우리학교로 공부하러 온 외국인 교환학생과 학생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우리나라 학생들과 어울리며 다양한 문화를 접해 보고자 하는 꿈을 품고 우리학교로 왔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며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외국인 학생들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상황이 호전되길 기원하고 있다.

우리학교 밖에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약 88만 4천여 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자국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우리나라로 와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런 꿈과는 달리 현실은 차별과 혐오로 점철돼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숙소 문제는 심각하다. 이번 해 1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이주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의하

면 이주노동자 69.6%가 가설 건축물인 △비닐하우스△조립식 패널△컨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농촌노동자의 경우엔 지역 모텔촌 등의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기에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난 3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대책'을 내렸지만 정착 필요한 변화는 담기지 않은 실속 없는 대책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이용 중인 이주노동자가 희망한다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한다. 다만 이주노동자가 직접 정부 고용복지센터에 신고하고 변경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장벽이 높은 이주 노동자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지적이 있다.

우리 주변엔 많은 외국인이 함께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을 외면한다. 내국인인 우리는 그들이 겪는 문제를 직접 맞닥뜨리지 않아 쉽게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어딘가에서 외국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상황을 모른 채하기보단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뜻 다가갈 수 있는 손길을 내줘야 한다. 작은 손길들이 모이면 비로소 그들은 낯선 타지에서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김연수 부장 100yeonsue@hufs.ac.kr

다음 달 11일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카비스 베이(Carbis Bay)에서는 G7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G7은 주요 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가 참석한다. 의장국은 초청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 해 의장국인 영국은 △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과 함께 우리나라를 초청했다. 지난해의 G7 정상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의장국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행정정부의 교체로 인해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반면에 이번 회의의 의장국을 맡은 영국은 초기부터 6월의 개최를 확정했고, 화상회의가 아닌, 대면 회의를 개최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G7 정상회의의 유래는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3년 △미국△영국△프랑스△서독 등 4개국의 재무장관은 서방세계의 주요 국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시작했고,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게 된다. 1975년에는 이탈리아가, 1976년에는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7개국의 멤버십이 완성됐다. 사실 7개국은 소련,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을 제외하면 당시 경제규모 면에서 1~7위까지의 국가들이다. 즉 G7은 1970년대 냉전 상황의 국제질서와 국가별 경제적 위상을 반영해 만들어진 과거의 산물이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자, G7은 러시아를 초청하였고, 1997년부터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참석하면서 G8으로 확대되었다. 반면에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같은 해 나머지 7개국은 러시아를 G8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과거의 7개국 체제로 회귀했다.

G7은 국제 협의체로서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G7의 멤버십이 확정되던 1976년 7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였다. 이 비중은 2008년에는 52%로 낮아졌고, 특히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G20이 등장했다. 2008년에 시작된 G20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주요 20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협의체이다. G7 회원국 외에도 △브라질△러시아△인도△네시△중국△브라질△남아공 등 이른바 BRICS 국가들이 포함되며, 우리나라도 공식참여국이다. G20은 세계인구의 2/3를 포함하며,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7에 비해서는 대표성이 더 높다. 반면에 참여국의 경제적 발전수준과 정치체제 등 국내 여건이 상이하다. 따라서 전 지구적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있으나, 국가적 갈등이 첨예한 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반면에 G7은 '뜻이 맞는 국가들(likely-minded countries)'의 모임인 만큼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인권 등 민감한 주제도 서슴치 않고 논의되는 특징이 있다. 물론, G7에서 논의된 주제가 전 세계의 관심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은 G7에 러시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호주△인도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G7을 G11 또는 G12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계속 제기된 바 있다. 회원국 확대에 대해 일본은 미온적인 입장이며, 중국은 이와 같은 논의를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간주한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는 산적해 있다. 따라서 회원국 확대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어떠한 형식이든 우리나라는 계속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G20 참여와 별개로 G7 참여를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입장을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 경제규모의 중견국가로서 △자유무역△보건의 △디지털 전환 등의 이슈에 있어 주도적인 의제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G7에서 준(準)회원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G7이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선진국 클럽이며, 외교안보, 민주주의 및 인권과 같은 규범적 가치를 표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회원국 확대 논의에서 중국이 배제돼 있다는 점은 G7이 갖는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의 실용외교 노선과 병행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동아시아 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00hyunzi@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이현지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외대학보 103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외대학보는 1955년 창간 후 2021년 오늘까지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학교 언론사입니다. 외대학보사에서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할 열정 있는 수습기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한국외국어대학교 양 배움터 3학기 활동이 가능한 재학생

2. **모집기간** : 2021. 5. 18(화) ~ 5. 31(월) 까지

3. **지원방법**

- 1) 외대학보 인스타그램이나 에브리타임에서 지원링크에 접속한다.
- 2) 지원서를 작성·제출한다
- 3) 합격 발표를 기다린다.

4. **입사시험일정**

- 1) 지원서에 적힌 연락처로 '면접고사 및 과제' 장소와 시간을 개별 공지함
- 2) 합격자 발표일은 추후 개별 통보함

5. **지원자 유의사항**

- 1) 3학기동안 활동 가능한 학생 지원 바람 (외대학보사 임기는 방중 수습기간 제외 총 3학기)
- 2) 방학 기간 중 매주 주말 및 계절학기 기간 제외, 서울캠퍼스 배움터에서 수습기자 교육일정을 진행하니 참가 가능한 학생만 지원 바람
- 3) 합격자는 방중교육동안 수습기자를 거쳐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정기자로 활동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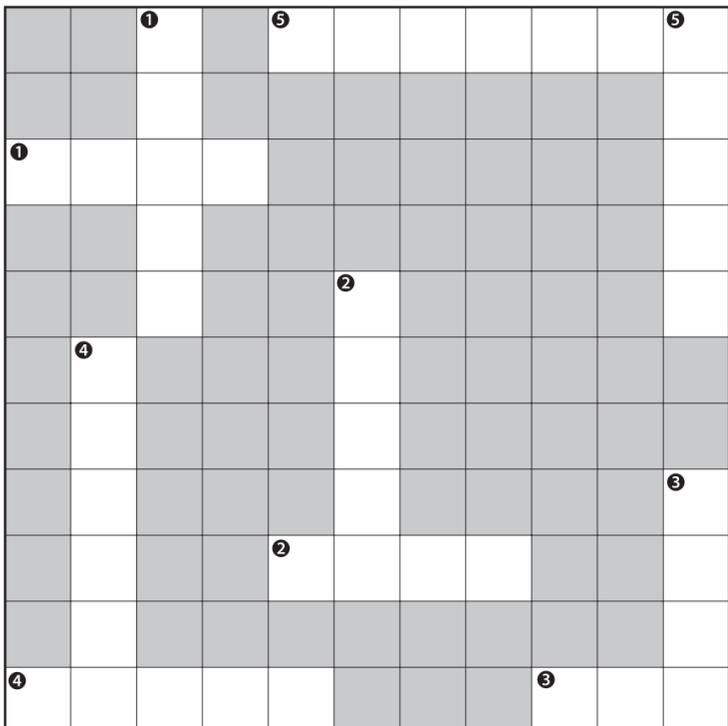
6. **문의사항 연락처**

이현지 편집장 : 010-9927-5690

- ☆ 언론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보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 ☆ 외대학보는 열정과 책임감 넘치는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십자말풀이



가로

1. 이번달 19일부터 이동확대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이이CONTACT' 비대면 0000가 진행됩니다. (1면 참조)
2. 2030세대의 주식·0000 투자 열풍은 삶의 안정성 추구하고 불안감 해소가 목적이란 분석이 있다. (3면 참조)
3. 모병제를 시행하면 군인 개인당 0000는 자급의 3배 정도로 증가한다. (7면 참조)
4. 0000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 사고를 낸 회사 대표나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8면 참조)
5. 10년 가까이 3,000건이 넘는 이혼 상담을 한 최유나 000000는 부부간 이별을 중재하고 법적 해결을 돕는다. (12면 참조)

세로

1. 반병렬 00000 회장이 우리학교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2면 참조)
2. 외국인 학부생 00000은 이미 2019년에 결정됐다. (4면 참조)
3.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학교 양캠퍼스는 0000 비용 및 사용처에 변화가 생겼다. (5면 참조)
4.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골자는 법적 가족 개념을 확대해 00000에 놓여있던 이들이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9면 참조)
5. 관객들은 영화 초반엔 주인공이며 장미를 가진 00000인 류에게 공감한다. (10면 참조)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칸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건강한 이별을 돕는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다



10년 가까이 3,000건이 넘는 이혼 상담을 한 최유나(영어·영통 04) 이혼전문변호사(이하 최 변호사)는 부부간 이별을 중재하고 법적 해결을 돕는다. 최 변호사는 인스타그램에서 연재하는 만화 '메리지 레드'와 책 '우리 이만 헤어져요'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샀다. 다양한 이혼 사례를 공유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이혼이 가진 선입견을 없애려 노력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최 변호사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영어통번역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영어통번역학과에 진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과 학생이었지만 스스로 문과 성향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과에 진학해야 할지 헷갈렸는데 평소 언어를 좋아한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영어에 대한 동경이 있었죠. 영어를 익히면 미래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학교 영어통번역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Q2. 변호사란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됐나요?

처음부터 변호사의 꿈을 꾸진 않았어요. 재학 중에 이증전공으로 신문방송학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언론 계열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자가 된 선배의 말을 들어보니 업무 강도가 보통이 아닌 것 같게 됐어요. 평소 체력이 좋지 않아 많은 고민이 됐죠.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로스쿨 진학을 권유하셨습니다. 변호사란 직업이 적성에도 맞아 보이고 체력소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죠.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기자△변호사△PD를 동시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학적성시험 준비를 하며 KBS와 MBC에 원서를 넣었어요. MBC 1차 시험에 합격해 2차 시험도 보러 갔지만 기자나 PD가 되는 길은 바늘구멍보다 좁단 사실을 깨달았죠. 언론고시에 많은 시간을 쏟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언론고시보다 로스쿨의 문턱이 낮아 보였죠. 시간 낭비 없이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었고 그렇게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Q2-1. 이혼전문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혼 사건이 아닌 민·형사 사건은 그다지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성취감을 이유로 이혼 사건보다 민·형사 사건을 맡고 싶어 하더라고요. 민사 사건에선 큰 액수의 돈이 오고 가고, 형사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제한다 측면에서 성취감이 큼니다. 이혼 사건은 누가 이기고 지는 재판이

라기보단 서로 합의하고 중재하는 소송이죠. 마치 정산하듯 재산을 분할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엔 유권을 합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이 적성에 더 잘 맞아 이혼전문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어요.

Q3. 가장 인상 깊었던 재판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있다 보니 양육권 다툼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감정 이입이 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아이를 6개월간 보여주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 상대에게 고통을 준 거죠. 법정에서 당사자가 울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혼전문변호사의 무게와 현실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아이를 통해 푸는 행위는 옳지 않아요.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감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부모 입장에서 참 괴로웠던 사건이었어요.

Q4. 이혼전문변호사 일을 하며 달라진 점이 있나요?

변호사가 된 후로 혼자 있는 생활이 좋아졌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사람을 좋아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게 버겁더라고요. 저만 보면 고민거리를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자신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또한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를 봐도 감흥이나 자극이 없어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느낌이죠.

Q5. 지난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이혼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체감하나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느껴집니다. 처음 변호사가 된 2012년 당시엔 이혼을 이기적 행위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을 참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경향이 덜합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복을 찾는 분위기가 보편화 된 것 같아요.

Q6. 변호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개인적인 가치관과 충돌할 땐 어떻게 극복하나요?

직업적 가치관과 개인적 가치관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일하다 보면 가치관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변호사는 법에 의거해 의뢰인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일을 하며 제 가치관을 의뢰인에게 주입한다거나 의뢰인을 증오하는 행위는 직업윤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Q7.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역지사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지만 좋은 인간 관계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죠.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건 역지사지가 아니에요. 상대의 가치관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전자처럼 행동한 뒤 역지사지를 했다고 착각하죠. 깊은 관계일수록 상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니까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유지하기 힘들어요.

Q8. 변호사 일을 하며 가장 보람чал 땐 언제인가요?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에도 저항하지 못한 채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이혼시켜 드릴 때 정말 뿌듯해요. 연세가 있는 어머님들 중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법에 무지한 경우가 많아요. 일생을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 이혼할 용기조차 내질 못하시죠. 그런 어머님들이 이혼하면서 받은 돈으로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요. 제 변호가 의뢰인의 새로운 삶에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줬

단 생각이 들어 보람차죠.

Q9. 인스타그램에서 연재하는 만화 '메리지 레드'와 책 '우리 이만 헤어져요'를 통해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자신에게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주어졌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이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에게만 지독한 불행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눈앞에 닥친 일이 너무 힘들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단 용기를 주고 싶어요.

Q10. 인생의 목표가 있나요?

언젠간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까진 육아의 고충을 크게 공감하지 못했죠. 그러나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 변호사 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싱글맘·대디를 존경하게 됐죠. 이분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금전적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책을 집필하는 등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요.

Q11.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란 직업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인생을 배로 사는 기본이거든요. 이 직업을 갖지 않았으면 몰랐을 타인의 이면을 보며 스스로 성숙해질 수 있죠.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해요.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편협한 원칙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나 같은 공기청정기 처음이죠?

UV 플러스 안심 살균으로
위생개념 철저

안전한 Air

무풍 청정으로
직바람,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한 Air

5way 흡입 3way 토출로
빠짐없이 구석구석

강력한 Air

크기, 컬러, 패턴
그리고 청정 성능까지

맞추는 Air

우리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Air
BESPOKE 큐브™ Air

*살균 기능은 모델마다 상이함(UV 플러스 안심 살균은 딥그린, 그레이 한정)

SAMSUNG

가전을 나답게.